

“그 갑옷, 당신 건가요?”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 다 같이
- * **찬 송** : 자유롭게 / 다 같이
- * **합심기도** : 오늘의 구역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모인 장소의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 * **대표기도** : 지난 주에 예배드린 가정의 가족 중에서 한 분
- * **성경봉독** : 사무엘상 17장 38~40절 말씀

▶ A. 구역공과 ◀

1.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한 주간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2. 요즘 나를 압도하는 ‘**골리앗**’(불안, 관계 갈등, 경제/일, 자녀, 건강, 죄의 습관, 미래 등)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덮기 위해 사울의 갑옷(세상이 말하는 안전장치: 체면, 비교, 스펙, 인정욕구, 남들의 방식, 성과 중심)을 입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 갑옷이 내게 “안전”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겁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3.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최근 한 주(또는 요즘) 내가 부딪힌 문제들 속에서, 나는 그것을 **내가 해결해야 하는 내 전쟁**으로만 짚어지고 있지는 않았나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목적(하나님의 영광, 믿음의 순종)을 먼저 두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맡겼던 순간**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4. 다윗의 승리는 특별한 무기가 아니라, 들판에서 훈련된 **익숙한 물맷돌 + 여호와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들판’에서 묵묵히 훈련시키신 나의 물맷돌(기도의 무릎, 성실함, 섬김, 말씀 붙드는 습관, 관계를 세우는 태도 등)은 무엇인가요?

▶ B. 공동체 성경읽기 ◀

월요일(민 16~18장)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거스르며 반역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십니다. 이어 아론의 싹 난 지팡이를 통해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그들의 기업과 헌물 규례를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거룩한 직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월



화

화요일(민 19~21장) 붉은 암송아지 규례를 통해 부정함에서 정결케 되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백성이 다시 원망하다가 불뱀의 재앙을 겪고, 늦뱀을 바라본 자가 살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며 가나안 입성을 향해 점점 전진합니다.

수요일(민 22~24장)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발람은 네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의 번성과 장차 올 왕(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목요일(민 25~27장)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브올을 섬기다가 큰 재앙을 당합니다. 비느하스의 거룩한 열심으로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슬로브핫 딸들의 상속 문제를 통해 공의로운 기업 분배 원칙이 세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가 공식적으로 세워집니다.

금요일(민 28~30장) 매일·안식일·절기마다 드려야 할 번제와 절기 제사의 규례가 다시 정리됩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공동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30장에서는 서원에 대한 규례를 통해 말의 책임과 약속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약속이 얼마나 진중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토요일(민 31~33장)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전리품 분배 원칙이 세워지고, 요단 동편 지파들이 기업을 요청하며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33장에서는 출애굽 이후 광야 여정을 다시 정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자취를 되짚어 봅니다. 광야 40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 여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주일(민 34~36장) 가나안 땅의 경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각 지파의 기업 분배 책임자가 세워집니다. 레위인을 위한 성읍과 도피성이 마련되어 공의와 자비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슬로브핫 딸들의 기업 문제를 보완하며 지파 간 기업 보존 원칙을 확정합니다. 약속의 땅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 속에서 준비됩니다.



*** 성경을 읽고 난 후 각자 느낀 점을 나눕니다.**

*** 합심기도 :**

1. 내 삶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세상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소서
2. 내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맡기는 담대함을 주소서
3. 아무도 보지 않는 삶의 들판에서 나의 물맷돌(말씀, 기도, 섬김, 사랑 등)을 더욱 단단히 준비하게 하소서

*** 찬송 및 헌금 :** 찬송가 393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헌금을 드리겠습니다.

***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 :** 드린 예물을 위해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역헌금은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